**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우리의 연결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 ...**

부유한 나라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은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데, 여전히 도움 받을 곳이 없음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사는 농부 오헬 스와대는 그러한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52 세인 그는 말합니다. "저는 농사 짓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아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매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속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시민 사회 연합 (CISCOPE)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피터 마이클 에그우다는 말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전세계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곳(당신의 공동체 이름을 넣으세요)의 이웃들과 나이지리아와 같은 곳의 이웃들과 함께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은 CISCOPE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CISCOPE는 나이지리아에서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피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음식, 종자씨와 같은 것들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일군들이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성들이 그들의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할 때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를 찾아갈 때마다,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자문합니다. 우리는 단지 음식을 나눠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에서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함께 일하는 발레리 노덤은 말합니다. "CISCOPE와 함께 사역하면서 고무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 장의 [만연한 빈곤 타파](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poverty/)라는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미국장로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누군가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피터와 발레리, 스웨이드 가족,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 줌과 동시에 정의, 회복 및 지속 가능성을 고양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장로교인들이 함께 일하는 *가장 규모가 큰* 방법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마태복음 25장이 표현한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과 연결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의 취지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이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과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에 처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와 모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